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4월 11일 (토) 제 1773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죽음이 죽었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소유나 존재냐”(To Have or to Be)의 작가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Homo Esperanse)로 정의하였다. Homo는 흙이라는 Humus에서 온 단어로서 인간을 뜻하고 Esperanse는 희망을 뜻한다. 인간은 “희망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흙에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된 절대희망의 존재이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단테가 갈파(喝破)한대로 지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다. 생지옥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다.

한창 이야기가 물오를 때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희망 사항이구요...” 희망을 폄하한 것이고, 폄하한 희망으로 대화를 얼어붙

게 만든다. 희망은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니다. 50%미만의 확률(確率)이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희망을 그럴 수가 없다. 기독교의 희망,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의 확실한 근거이다.

저마다 치켜세운 맨해튼의 마천루(摩天樓), 영화에도 등장하는 브루클린 브릿지(Brooklyn Bridge), 패션의 메카 소호(Soho),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은 브로드웨이 뮤지컬(Broadway Musical). 많은 사람들이 동경(憧憬)해 마지않은 뉴욕이다. 이곳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나는 뉴욕 현장에서 2001년의 9.11을 보았다. 수천명 죽음 앞에 통곡을 들었다. 지금은 2020년 4월, 창문을 열기만하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뉴욕에 또 살고 있다. 죽음의 영이 뉴욕에는 질게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눈만 뜨면 간밤에도 수많은 자들이 죽음의 물결에 휩쓸려 갔다는 소식뿐이다. 여러 소식들이 가슴을 메이게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 보내온 시신을 담은 검은 봉지가 여기저기 빼곡히 널려져 있는 영상에 충격을 받는다. 최고의 도시를 자처(自處)해온 뉴욕은 그 스스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도시에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다. 왜 뉴욕뿐이겠는가. 온 세상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한 마디로 단절(斷絶)이다. 통상(通常) 세 차원의 단절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둘째는 영과 육의 단절도 있다. 육체적 죽음이다. 그리고 셋째는 천국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단절은 이 셋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다면 누구도 못 견딜 것이다. 사회적 단절은 죽음 못지않게 힘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단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에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하다고 하여 일본어로 알고 있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 삶에 와 닿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타의(他意)적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그렇다. 내가 그 때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했는지 후회도 된다.

후회만 하고 있진 않겠다. 그리워만 하지 않겠다. 희망을 갖겠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뜬 구름이 아니다. 실체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요 희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단절의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의 단절을 연결로 바꾼다. 하나님과의 연결, 믿는 자가 그 날의 부활로 맞는 영과 육의 영원한 연결, 천국과의 연결은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 준 희망이고 실체이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코로나바이러스 정국(政局)이 끝나면 사회적 연결이 이전같이 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사회적 연결은 너무 이기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관계가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형(原形), 하나님나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단절되었던 모든 영역에 희망을 갖듯이 죽은 것 같았던 옛 사회적 관계는 죽고 새로운 관계가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이다.

### 부활시

##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강태광 목사 (시인, 칼럼니스트)  
World Share USA 대표

만물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계절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마른 땅에새싹 돌아나고  
말랐던 가지에서  
새순 살아나듯

닫혔던 돌문 여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이 기지개꺼는  
이른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나긴 어둠 깨고  
아침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끝에  
새봄이 오듯이

사망의 끝에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부활 소망으로 ...  
2020년 부활절...

2면



부활절 설교  
이용길 목사

3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c.edu | (213) 669-0009 | 66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게 느껴지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Website. http://www.lafgc.com



시론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바른 예배자



최해근 목사 (용고메리교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지가 벌써 여러 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집에서 가능한 나이지 않도록 요구한 주(州)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어도 4월 26일 주일 혹은 그 이후까지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4월 26일 주일이 마지막 온라인예배가 되고 5월 3일 주일에는 기쁜 얼굴로 만나는 것입니다!

온라인예배와 관련하여 최근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결코 중단해서는 되지 않는다'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필자는 두 입장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의 중심에서 나왔다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강조하는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배관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신앙적이거나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웃이 갖고 있는 아픔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만에 심취해 이웃을 멀리했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할 내용은 각 주(州)마다 자택대기령(stay-at-home)을 내리면서 종교기관 모임에 대한 규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주(州)의 실정법을 꼭 준수하며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필자가 속한 PA 주(州)에서는 예배당 모임은 허락되지만 반드시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마스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CNN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12개 주(州)에서 종교적인 모임을 조건부로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AZ, CO, DE, FL, KY, MI, NM, NC, PA, TX, WV, WI).

그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로 보기 시작하면 그 또한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놓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가장 바람직할까 생각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이웃을 향한 배려로 인해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새벽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함께 새벽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이 수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심풀이로 이른 새벽부터 유튜브를 뒤적이며 새벽예배를 시청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지만 자신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 이들이야말로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가져온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자세를 낮추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그분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을 깊이 존중하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예배에 임하는 신앙인들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뜰.

thechoi82@yahoo.com

부활 소망으로 코로나19 이겨낸다!

2020년 부활절...소망과 변화로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복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우리 신앙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고통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쟁과 그로 인한 불신, 고립과 단절,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가 더 두렵기만 한 상황에서 맞는 부활절은 진정한 소망으로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크리스천은 죽음 이후가 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다. 크리스천은 '부활'이 약속된 사랑이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아픔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죽음보다 크지 않다. 성도는 그 죽음도 이긴 부활이 약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산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승리로 만드는 사람이다.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친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탄생

예수님의 부활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조명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빌려 우리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



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산 믿음이며, 매일 수천 명씩 감명으로 죽어가는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다.

결국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그로 인한 불신, 고립과 단절,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가 더 두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여전히 신뢰의 대상인지, 고립과 단절, 혐오와 배제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천연두가 로마를 강타할 때 초대교회는 거리에 방치된 시체들을 치우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로마제국 내에서 대안 공동체가 됐다. 그러나 중세시대 로마가톨릭교회는 흑사병이 돌아 유대인 혐오와 마녀사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고 중세가 몰락하며 교회가 역사의 선택을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죽음 이후 더 분명하고 약속된 부활 소망 있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어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15:55-58).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 채우실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가 시작된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가올 새 창조의 연관성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한다. 바울은 그 본문에서 고통에서 부활생명으로 옮겨가는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세계를 묘사했다. 예

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신음한다.

피조물의 신음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과 이어졌음을 뜻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되는 것, 즉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신음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부활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피조물의 신음은 장차 다가올 부활을 통해 창조세계가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섞여있다. 그러나 만일 이 피조물이 우리처럼 회복을 바라고 신음한다면, 놀랍게도 이 세상의 종말은 소멸이 아니라 구원이다.

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신뢰하기 시작한 사도들과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자신들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삶의 자세가 변화했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됐다. 핍박과 죽음조차 그들의 믿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고백이나 확신으로 전부가 아니라 고백한대로 부

마주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초대교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바라신다!

(편집부)

[알림] 본지 4월 18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E.S.T.E.R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 25)'
주님의 이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곡교회(한국) 지용수 목사
5156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1 양곡교회
양곡교회(LA) 지용덕 목사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서울대학교의 전종갑 교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법칙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이 법칙들을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발견한 것은 물 한 컵도 되지 않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이라 아니라 초과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는 내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해야 보이는 것만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그 것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전15:12)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고린도교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얼마나 확신있게 부활을 증거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요20:27) 여기서 믿음 없는 자는 불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하거나 미래에 되돌아갈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살을 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고 기쁨

으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다 믿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증거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빈무덤”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날

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듯이(요20:19) 주님은 문들이 잠겨있어도 들어가시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을 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의 신앙은 죽은 예수님을 찾으려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여인들로 하여금 주

다. 그래서 성도의 무덤은 형식이요 과정입니다. 빈무덤을 여인들만 보았다면 환상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요20:2). 사도들이 본 빈무덤은 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의심 없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부활신앙은 빈무덤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11-12절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빈무덤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의 교훈을 직접 듣고 훈련을 받고 많

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4:20).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찬송하리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벧전1:3).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순교하게 된 비결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도마는 내가 보아야 믿겠다고 의심하였으나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도요한을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 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질설”, “도적설”, “환상

화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열한 번이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행20:28).

교회는 기초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된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지나온 역사 속에 교회가 일시적으로 부패할 때가 있었고 핍박을 인하여 잠시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십대 황제들의 핍박, 공산주의자들의 핍박,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핍박이 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엡1:23).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섬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에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나사렛 예수 세운 교회는 날로 흥왕하여 온 세계에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신 장거리 박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교회처럼 헌금으로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13면으로 계속)


**부활절 설교**

**부활의 확증**

누가복음 24장 1-12절

이용걸 목사

(KAPC증경총회장, 필리핀생명교회 원로)



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기운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까지 한 후 병사들이 지키게 하였습니까(마27:66).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막16:3).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었다고 말씀합니다(마28:2).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돌을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유대인

님이 사셨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였습니다.

무덤이 그대로 있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 무덤은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빈 무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줍니다. 저는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요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의 기원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잡혀가 죽지 않을까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3:14). 증인이라는 말은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니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저들을 잡아와서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

을” “침가설”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부활의 확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어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습니까? 2천년 교회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당하며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십시오.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이 없다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변에 변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품전문**  
 뉴욕(Tel. 718) 762-0011  
 뉴저지(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광유체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의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치아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718-886-4400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부활의 기쁨을 사랑의 나눔으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블랙박스(Black Box)

블랙박스(Black Box)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첫 번째는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자동차의 정면과 후면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블랙박스가 필수적인 이유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붙이기 위해 큰 소리부터 치는 한국 운전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사고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인 블랙박스의 기록이 더 큰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블랙박스

입니다.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 기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비행기 블랙박스는 '수심 약100미터의 압력과 섭씨 1300도의 높은 온도'도 견딜 수 있으며 내부에 위치 발신기가 내장되어 있어 찾기가 쉽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일한 문제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블랙박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언행, 나의 고백, 나의 허물 등등 나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입니까? 아이들의 휴교명령입니까? 증권시장 폭락입니까? 직장 해고입니까? 행정명령으로 닫은 비즈니스입니까? 외출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입니까? 교회를 못가는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온라인예배의 답답함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의 원인을 알고 싶은가요?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나요?

지금 내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보세요. 내 문제를 절대 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성령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블랙박스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

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불안과 두려움, 나의 근심과 걱정, 나의 이기심과 연약함, 나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나의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고 기록된 나의 삶을 살펴봅시다.

내 문제의 원인을 직면합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누가 내 인생 비행을 조종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의 영적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블랙박스에 담긴 데이터를 보여주시길 것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블랙박스의 리셋(Reset) 버튼을 눌러주시길 것입니다.

나의 불안, 나의 염려, 나의 실패, 나의 불신앙의 데이터마저도 다 지워주시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 버리고 믿음으로 비상할 은혜를 주시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길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란 위기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블랙박스에 '나의 이야기'(My story)보다 '하나님의 이야기'(God story)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의 희생 본받은 행동으로 부흥 이뤄

## TGC, 역사적으로 본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 성장' 요약 소개(하)

### 3.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세기부터 흑사병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과 5년 만에 유럽인구 절반이 사라졌고, 그중 도시 지역은 감염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역병은 이어지는 세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1527년 비텐베르크를 강타한 전염병도 거기에 포함됐다. 이에 수많은 자가 도망갔다. 그러나 루터와 당시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남아서 아픈 자들을 돌보았다. 마태복음 25장 41-46절을 자신들의 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에게 묶여 있어 누구도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가까이 그를 돕고 거들어줘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루터는 도망가는 일이 용인되던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다. 그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와 다른 결정을 내린

다고 타인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이제 우리만 몇몇 집사들과 더불어 남았으나, 그리스도 역사 함께 계시므로 우리만 남았다고 해선 안 되겠지요. 저 옛 뱀, 살인자, 죄악의 장본인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요. 그분의 발꿈치를 저가 얼마나 상하게 하였든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라며"(1527년 8월19일자 편지). 여기서 우리는 루터의 사고 속에 사탄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며(여기서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염병 배후에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는 훨씬 더 강력한 분으로, 훨씬 더 현재 상황 속에 깊이 관여하는 분

으로 인식된다. 그분은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이들 가운데 계시면서, 또한 아픈 자들 가운데도 계신다(마 25장).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겨 마침내 거머쥔 승리 가운데도 계신다. 그 승리에는 전염병에서 회복되는 일처럼 작은 의미의 '구원' 사건까지도 포함된다. 이처럼 루터와 카타리나는 살아남

아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었다.

### 4. 런던의 찰스 스펠전 (Charles Spurgeon)

1850년대까지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도시였으며 인구도 2백만 명을 넘었다. 그러다가 1854년에 콜레라가 발생하며 런던 시민들의 마음에 공포감이 조성됐다.

당시 스무 살밖에 되지 않던 찰스 스펠전은 뉴파크스트리트교회(New Park Street Chapel)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 영국의

수도로 가게 됐다. 훗날 그는 당시의 전염병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런던이라는 도시를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트가 됐다고 회고한다.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각성되는 때가 있다. 바로 죽음이 도처에 널려있을 때다.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복

음에 귀를 기울였는지 떠오른다. 콜레라가 무서울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가볍게 조소하며 설교를 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스펠전은 그 당시 죽음을 앞두고 있던 한 사람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심히 반대하던 자였다고 한다.

"그 사람은 생전에 나를 늘 조롱하던 자였다.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내에 대해 위선자라고 하며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닌 자였다. 그러던 그가 죽음의 화살을 맞게 되자, 곧바로 나를 찾으며

상담해주시기를 요청해왔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자리하지 못했다. 비록 입술로는 그 사실을 고백하진 않았더라도 말이다."

세상의 기반은 늘 흔들리고 위태롭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는 종종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는 폭풍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스펠전은 당시 전염병이 수많은 이들을 휘몰아쳐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기도 못하게 만드는 폭풍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분명 이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다. 그 차이가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가령 현대식 병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의료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앞선 세대는 환자를 돌보며 그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관한 지

식도 거의 갖추지 못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심지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데도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려는 대상에게 병을 옮기 기보다 차라리 자가 격리하는 편이 사랑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소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랑 이라면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계 시장은 불확실하며,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가운데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시련의 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넓혀 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한다.

## 연약한 육신, 불확실한 세계시장, 죽음 피할 수 없는 인간 그리스도만이 폭풍 잠재울...유일한 반석 의지해 복음전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을 이기게 하소서!

#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 25-26

발행인 김성국 목사 외 직원일동

최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참 신앙 좋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직장시험 준비로 짝지 않은 거리에 주말에만 집을 다녀갔었는데, 최근 부인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양성판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남편이 그 내용을 따라가 보니 아내가 남편 몰래 그만 3년간 신천지교회를 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충격에 남편집사님은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위로를 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혹여 지금이라도 바이러스로 인해 신천지의 악한 체계가 드러났음에 감사하라고 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없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깊이 빠져들었다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다. 더불어 가장 먼저 전화번호부터 바꾸라고 조언을 하면서 긴 통화가 진행되었다. 성경의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모사

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유가, 모략이라는 거짓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마귀의 특징에 가장 흡사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참과 거짓이라는 본질적인 도덕률마저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전략의 하위전술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평가한다.

**악한 체계-사회적 독기**

일반교회들도 사후 범적인 일처리를 위해 신천지 출입의 통제를 말할 뿐 분별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 더 소개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5년, 3년, 길게는 7년, 교회에서 잠잠히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세력화가 되면 들고 일어나 목사님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잡음들을 듣고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교회를 깨고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신천지에서 세워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장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익히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거짓선지자를 분별해내지 못했을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이고자 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단인 것이다.

예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뉴욕에 와서 찬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처음부터 찬송가가 아닌 램으로 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찬송가를 한두 곡 부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무르익을 것 같으면 램으로 된 찬양을 바꾸어서 부르면 된다는 그런 강의를 했다. 그 자리에 계시던 목사님 한분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것은 이단 흉내를 내라는 것이다.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은 다 똑같은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꼬리가 다르다는 것 아니겠는가? 머리는 분명히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꼬리를 보니까 뱀의 꼬리더라. 이것이 이단이다. 처

때 비로소 알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마지막 끝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그 때 그 고통 중에도 그의 고백이 무엇이였는가?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도상에서도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한결같았음을 본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너무나 똑같았다는 사실을 선행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성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화목하고 화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과 같은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금지되어 교회로 못 모이다 보니 모든 교회들이 어렵지만 개척교회들은 더 어렵습니다. 영상에 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장비도 그렇고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영상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 지요?  
-오렌지카운티에서 임 목사

**A:** 신앙의 교회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교회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모이는 교회(gathering church)와 흩어지는 교회(scattering church)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는 교회는 주일에배처럼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핏맥 시에 집에서 많이 운용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회로 모이지 못하는 때는 가정예배가 좋다고 봅니다. 특히 영상예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가정예배식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목사가 준비할 것은 미리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메일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토요일 전에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요일쯤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1시로 정하고 설교문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든지 하면 좋

**영상예배 힘들면 가정예배 시도해보길**

을 것입니다. 약40-45분 정도 걸립니다.

1. 목상기도(집안의 세대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46:1-3)/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찬송 - 전능왕 오셔서(10장) 찬송의 내용을 다 주보에 적으십시오.
- 3. 사도신경
- 4. 기도 - 가족 중 한분
- 5. 성경봉독 - 목사님이 주신 본문
- 6. 설교 -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 사람이 읽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 7. 봉헌 - 헌금을 드린 후에 모아 놓았다가 추후 교회에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 8. 찬송 - 주안에 있는 나에게(찬 370장). 찬송의 내용을 주보에 다 적으십시오.
- 9.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되지만 가족들이 단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near to God). 그리고 이런 때는 교회로 못 모이기 때문에 과거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CD로 한 주에 한두 편 보내주시든지 집에서 설교를 녹음하여 카톡설교로 보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때는 교인들도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재정도 매우 어려울 줄 압니다. 이 위기를 다 같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자주 카톡으로나 전화로 교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을 다짐해야 한다. 먼 훗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조금 고통스럽다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할진대 굳이 남을 속이는 거짓 신천지 이단집단에 갇혀있고, 사는 것도 괴롭고, 죽음의 끝자락은 더 괴로운 일을 행하며 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굳이 남을 미워하고 속이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생명 있는 시간동안에 굳이

-신천지, 분별력, 끝이 좋은 사람

의 궤를 꺾는 저들의 거짓진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밤새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온갖 기분 우울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많이 힘이 들었다.

**이성과 지식, 분별력**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의아스러웠던 것은 사람의 이성이 어디까지 작동하는가에 대한 회의였다. 배운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시던 분이었는데 참으로 황망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이성의 능력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종교인이 아니어도 추하고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일정부분 분별하도록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허망해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게 된 것이다. 고시공부하던 남편을 착하게 내조하던 그 분이 어떻게, 조금만 신앙의 기본 도구를 사용해 보면 금방 드러날 악한 비진리였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마음이 든다. 사단의 악함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한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단에 정통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도 신천지가 제일 골치 아픈 이단이라는 것이다.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

아는 내용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는 중에 신천지 사람들이 순차적인 위장전입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들이다. 모든 신상정보를 찾아내어 마치 정보기관이 작전을 퍼듯이 그 포섭대상자의 가정과 출가자녀의 생년월일까지 파악해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악한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포섭대상자 가운데는 한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와 권사라는 사람들마저도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무차별적인 포섭대상자 사용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편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반갑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겁이 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성경에 보면 거짓선지자들은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한다는 그런 말씀이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의 한국의 상황이었는 것이다. 안타까움으로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대체 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속이려고 걱정하고 담배는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해보라. 속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영적

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지적이다. 신천지의 끝을 보라, 가정 파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위장교회, 위장복음, 진리파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행들, 거짓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결과의 끝을 볼 때 속히 없어져야 될 사회적 독기가 되는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끝이 좋은 사람**

어떤 집단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그 생의 끝자락이 아름답고 좋아야 한다. 사람은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 평소에는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속상한 때에는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가 진실로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분별하게 된다.

왜 그런가? 끝자락 꼬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기에 그러하다. 꼬리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잘 지냈는데,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행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그

무엇이 있었는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자기 양 아들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자기 자식처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이 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천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끝을 보면 안다.” 이것이 정답이다. 끝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은 아니다. 처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사귀어다가 어느 순간 끝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끝이 어떨까?” 이것을 자주 질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된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아니면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임종예배를 드러보면 당연히 알 수 있다. 성경으로 점검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과 위험 앞에서, 삶과 죽음의 길 앞에서, 생명 있는 시간동안에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함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필리핀의 팡우타란 사마(PANGUTARAN SAMBA)

팡우타란 사마족은 필리핀과 대도 보르네오섬 사이에 술루 다도해에 위치한 섬에 살고 있다. 팡구타란 사마인들은 사마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부족그룹이다. 그들은 사마-바자우(Sama-bajau)의 방언을 말한다.

사마 또는 사말(Samal)이란 말은 필리핀 중부에서 보르네오 동부 섬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로티까지에 위치한 사마-바자우어를 말하는 다양한 부족 그룹들을 통



털어 말한다. 대체로 이들은 정치적 통일성이 결여된 단결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마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방언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구별한다. 사마들은 원래 술루 북동쪽 섬으로부터 민다나오 남서에서 분리된 해변과 섬들에 위치한다. 그들은 기원후 1세기경에 중국의 무역이 확장하면서 이주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 섬의 남쪽과 서쪽으로 이주해 술루 다도해를 따라 자신의 영역을 건설했다.

#### 삶의 모습

사마인들은 바닷사람들이

다. 어업이 그들의 주요 경제 수단이다. 해상무역과 농사일도 종사한다. 이 지역 전체가 야자유(copra)를 내는 야자열매 축산은 주요 수입 상품이다. 그러나 야자유의 보유가 소량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이 상업 역시 사마인들 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해상에서 생활하는 배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항해기술과 건어물과 트래방(해삼), 진주, 진주조개 등의 보급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마 원주민들은 아주 조밀하게 밀집된 가족들이 해변을 따라 잘 보호된 모습으로 뿔어 있다. 어떤 지역은 가족들이 바로 바다위에 지어져 있거나 어떤 지역은 해변 가를 향해 위치하고 있다. 바다위에 있는 집들은 널빤지 혹은 좁은 다리로 물과 연결되었다. 1-3미터

높이의 대 말뚝위에 지은 가족은 보통 부엌하나가 따라붙은 사각형의 거실이 있다. 가족들은 탐퓌(포도송이 같은 다세대 가옥)이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택단지에 가까운 친척들을 이웃으로 무리를 지어 산다. 다세대 가옥 중 통장에 해당하는 자가 탐퓌 대변인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 탐퓌는 교구(Parish)와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단일사원(Mosque)에 소속된다.

고기 잡는 일과, 배 만드는 일, 그리고 주물 일들은 남성들의 일이며, 매트(mats)를 짜는 일과 도기를 구워 파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농사일과 상업은 남녀가 함께 관여한다. 사마인들은 전통적인 춤, 노래, 타악기, 실로폰 음악(목곡악기), 매트염색, 그리고 음식 담그고 목조공예들로 유명하다.

#### 신앙

사마인들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종교문제에 박식한 자를 이만(이슬람 지도자), 그리고 다른 이슬람 관료들은 파키(Paki) 혹은 파킬(Paki)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든 주요 종교행사와 신앙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금요기도회는 이슬람 교구사원(Mosque)에서 열리며 이날은 일일기도가 한주 간에 절정에 달하는 기도회이다. 또한 연중 이슬람 종교행사는 월력에 따라 집행하며 예를 들어 라마단(Ramadan 모하메드 생일축제)이 있다.

사마인들은 아직도 전통 신앙을 지키고 있다. 가까운 묘지에 모셔둔 죽은 자의 신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해주기를 기도한다.

어떤 묘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샤반(Shaaban)기간 동안 야나 님이 로(roh, 죽은 자의 영혼)를 다시 세상에 돌아오도록 허용한다고 말한다. 돌아온 영혼을 위해 생존자들은 죽은 자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정결하게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 이래 술루 다도해는 대단한 정치적 불안에 휩싸여왔다. 연속적인 내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타 지역으로 집단이동으로 재배치됐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아직도 많은 살인, 납치, 그리고 필리핀군부와 전투를 치루고 있다. 팡구타란 사마인들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올 들어 중국서 미국으로 43만명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표 이후 중국서 미국으로 43만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첫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이후 약 43만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5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2월 2일부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이후조차 중국에서 미국으로 4만명이 입국했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가족에 대해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NYT는 항공편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늦었으며 미 공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곁길기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인 1월에는 중국 우한으로부터도 수 천명이 미국에 입국했다.

특히 1월 중순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여부 등에 대한 체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우한을 다녀온 입국자에 대해서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3곳의 공항에서만 체크를 시작했지만 이미 우한에서 4000명이 입국한 뒤였다. 2주가 더 지나서야 공항에서의 체크를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NYT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25%가 무증상이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언급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발 항공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앤드루 우(31)의 인터뷰도 실었다. 우씨는 "공황 검역 요원이 질문지를 쪽 읽었을 뿐 코로나19 검역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면서 "느슨한 절차에 놀랐다"고 말했다.

#### 美 사망자 1만명 육박...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2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9000명을 넘겼다. '최악의 한주'가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6일 오전 7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3만5524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수는 9562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미 공중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1주일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진주만과 9·11(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극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한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심각한 한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주 내 또는 그보다 좀 더 후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곡선이 평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8327명 늘어난 12만 203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94명이 증가한 4159명을 기록했다. '24시간 기준' 뉴욕주의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앞서 4일에는 사망자가 하루 전보다 630명이 늘어났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규 사망자 숫자가 약간 정제됐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 선분 낙관을 경계했다.

뉴욕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뉴저지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3482명이 늘어난 3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17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루이지애나주의 존 벨 에드

워드 주지사는 주가 확보한 인공호흡기가 오는 9일쯤 동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이지애나주 확진자는 1만2천여명으로 확진자 규모 면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의 뒤를 잇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155명에 이르며, 다만 이들중 임원자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 대해 중대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다.

#### 코로나19로 전쟁전사사 수준 넘을 수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자가 1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보다 많은 미국인이 숨질 수 있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데스크포스(TF) 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를 해도 10만~24만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 CNBC가 1일 보도했다.

CNBC는 이 수치를 각 전쟁의 미국 전사사 수치와 비교했다.

백악관이 예측한 사망자 최저선인 10만명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5만4246명)의 2배 수준이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11만6516명)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만일 코로나19로 미국인 24만명이 숨지면 이 수치는 남북전쟁 사망자(49만8332명)의 절반 수준이 된다.

결국, 10만~24만명의 죽음이 현실화하면 코로나19가 심장 질환과 암에 이어 미국인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7635 Dean Martin Dr.,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 찬양: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목회, 유년, 청년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3416 Atlas Ave., Hpkinton, PA 01748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부: 오전 10:45 주일기도회: 오후 8:00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노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토요일: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jkc.org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94. 김영훈(1878-1939)

김영훈은 1878년 평북 의주군 월화면 호암동에서 의주 부사 김유현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김유현은 국내 최초 교인이었던 백홍준의 사위 김관근의 인도로 1897년에 신자가 된다. 한학과 한시를 배운 그가 사무엘 마펫(마포삼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 그는 고향 호암교회 장로로서 조사였다. 1913년 6월에 신학교를 졸업한 그를 그해 8월 북평안노회는 총회 지시에 따라 그를 중국 선교사로 임명하면서 목사로 안수하였다.

선교사를 환영하였다. 김영훈은 선교팀과 함께 중국인 어학선생의 도움으로 내양 부근 각 촌에 있던 교인 5, 6인을 모아 성내에 복음당(기도처)을 세웠다. 김영훈과 그의 선교팀은 목사의 교회사역, 교사의 학교사역 그리고 의



중국 북평의 김영훈 목사

#### 중국 산동

신학교 선배 박태로와 동기 사병순과 함께 김영훈이 1913년 장로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성 내양으로 파송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미국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힘들고 불편한 조선에서 젊음을 바치는데 크게 감격했던 그가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12년 장로회 총회는 총회를 조직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조선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에 감사하여 유교를 잠시한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에 복음으로 빛을 갠다는 취지다.

김영훈은 가족을 데리고 1913년 11월 산동 선교팀과 함께 내양현 서문내에 가서 중국인 가족을 임대했다. 내양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양현의 지사로부터 큰 잔치를 베풀겠다는 초청장을 받은 담례로 그가 보낸 한시에서 내양현의 물고기가 됐다. 그 한시는 지사가 기독교인이 될 것을 간절히 권고하고 신자가 되면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내양현에서 가장 유식한 한학자 장수명이 이 시에 감동하여 그를 방문하였고 70세가 넘는 이 노학자는 첫 개종자가 된다. 그가 중국어 연수 중 서둘러 필담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던 선교사로서의 뜨거운 소명이 확인된다. 1917년 총회록에 따르면 현지 중국인들은 우리 장로교회를 신령한 교파로 인정하고 우리

의 의료사역으로 구성된 '삼사운동' 중 교회개혁과 학교사역을 병행했다. 주일강론회와 수요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며, 필담과 전도지, 성경화본 및 칠판판을 사용하여 순회전도를 하였고, 시장과 가정 그리고 노년에서 노방전도를 함으로써 유행전도를 했다. 그리고 사경회와 심방 등 좌당전도도 겸했다.

1915년에 최초로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등록교인 40여 명 중 30여 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들 중 군인 한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고 강서당에 밤마다 시간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부지런히 하였다. 그해 성탄절 헌금으로 서책 1상자를 구매하여 내양 교도소에서 전도하였다.

그리고 김영훈의 선교팀은 내양 성내 복음당에서 '보통교육'을 통해 내양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맹퇴치를 꾀했다.

1916년 총회 전도국은 산동 선교부에 이일영과 심의현 등 두 목사를 보내 선교사 3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살림하게 하고 한 집을 더 마련하기로 하는 등 선교사와 선교사역

을 배려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던 선인자 박태로가 1916년 4월에 가족과 함께 서둘러 귀국했다.

1916년에 세례교인 12명과 원입교인 30명 등 42명의 교인 대부분이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매주 헌금은 8, 90원이 되어 한 해 총 헌금액은 약 50원이었다. 1917년 9월 총회 보고에 따르면 많으면 5, 60명, 적으면 4, 50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이중 세례교인이 28명, 학습교인은 35명이었고, 새로 믿기로 한 자가 26명이었으니 작년에 비해 성장했다. 그해 2명의 집사를 세웠고, 6곳에 기도처를 조직했으며 이중 3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총 32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총 3명의 교사가 가르쳤다. 헌금은 매 주일 4, 50원이었는데 1년간 총 120여 원을 헌금했다.

타문화 선교는 열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영훈은 사병순과 함께 1917년 4월 선교지를 이탈하고 한국으로 선교활동 3년5개월 만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편지와 주의 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했다. 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었던 그가 1927년 7월 27일자 '기독교신보'에 기고한 회고담에서 그의 철수는 선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총회전도국이 선교사에 대해 서양 선교사들과 같이 풍족하지

그는 상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전도했다. 원인 책방 '소년서회'의 주인인 주원이 귀국함에 따라 1918년 1월 김영훈이 '소년서회'를 넘겨받았다. 매순길 1242번지에 있던 '소년서회'는 웅변법, 논어 등 일반서적 외에도 '신약소본'과 '찬송가' 등 기독교 서적도 있어 문서선교를 감당했는데 그해 11월 흥사단 본부로 대각한다. 그해 9월 김영훈은 맨티카한인감리교회 예배당 건축에 5달러를 헌금했다.

#### 삭도 한인교회

김영훈은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으로 1919년 6월에 삭도(새크라멘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한다. 당시 김홍균은 본 교회의 전도사였다. 김영훈이 부임한 다음 달 8일에 삭도 농원 중개인 이창식이 현주성의 28세 된 부인을 유인하여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하여 그의 부임 신고식이 흑독했다. 1920년에는 김영준이 별세하고, 북가주 윌로우스의 사덕순이 삭도에서 수술하는 등 우울한 한 해였지만, 양주은과 김홍균 전도사가 딸을 낳고 장막일이 득남하는 기쁨도 있었다.

1921년에도 희비는 엇갈렸다. 안성근이 별세하였고, 신경환과 김종학과

등락하였는데 김재신이 가르쳤다. 그녀는 사세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제2차 국민교육을 당당한 의무로 알고 허락하였는데 김영훈도 그러했다. 그의 목회는 1921년 10월까지 2년 4개월이었다.

#### 순행전도사

김영훈은 1921년 10월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 지방회에서 순행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는 맨티카와 맥스웰, 윌로우스, 스타튼 등 북가주 일대에 흩어져 노동하는 한인에게 복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일깨워주는 일로 동분서주했다. 그해 평균 예배출석수는 맨티카교회가 20명, 맥스웰교회가 35명, 윌로우스교회가 30명, 스타튼교회가 22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순행전도 사역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 미주 독립운동

1918년 1월 김영훈은 대한국민회 북미총회 법무원을 맡으면서 미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한독립에 미주 중국인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흥사단에서 활동했다. 1917년 11월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한국에 대한 원인과 우리의 동포의 급선무"에서 그의 독립운동은 '동포의 정신적 단합'에 있었다. 그가 쓰기를 "슬프도다. 우리 대한의 망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한이 건국 4243년 8월 29일에 망하였다 하나 이날은 나라를 장사한 날이요. 정 망한 날은 병정 뽑고 관제 변하는 날이라... 우리 동포의 급선무가 무엇이었나... 우리 조국을 회복키로 주의를 일체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 주의만 일치하고 보면... 단합이 생기며 단합 중에서 희망이 생기며 희망 중에서 지혜가 생기며 지혜 중에서 발달이 생기며 발달 중에서 용감 전진의 운동을 금치 못하게 내리니 우리 조국을 회복하는 일이 결함이 없을 줄 믿나이다."

#### 귀국

1921년 9월 제10회 총회 회의록에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영훈씨가 중국 산동으로 다시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는 청원을 전도부로 보냈다"고 적었는데 이듬해 그는 의주 서노회 목사가 되었고 2년 후 의산교회 노회장을 거쳐 1925년 의주 양실학교 교장에 이어 1927년 제16회 총회장으로 선출된다. 총회장으로서 그의 최고의 업적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조직과 함태영 목사와의 공저인 '장로회사기 하권' 집필이다. 1932년 2월 갑자기 의주 서교회 목사직을 내려놓더니 1939년 향년 61세에 김영훈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다.

damien.sohn@gmail.com

## 1913년 중국선교사 파송, 1917년 도미 상항 삭도목회 순행전도사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조직, 함태영 목사와 '장로회사기 하권' 집필

않더라도 재판시설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빈약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고 철수에 앞서 선교목적을 완수했고 선교 토대 또한 구축했음을 주장했다.

#### 상항 한인교회 전도사

김영훈은 산동 선교팀의 사병순과 함께 1917년 7월 20일 '차이나호'를 타고 상항(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들은 상항한인교회의 환영회에 참석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다음 달 29일 맨티카한인회가 주최한 국지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사병순이 기도한 후 김영훈은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해 상항한인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그는 중국인을 배려하여 중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신한민보'는 '흥미 있는 예식의 순서'라고 평했다.

미국 남감리교 두부사 감독의 사화로 1918년 10월에 상항한인교회에서 모인 북가주한인감리교회 지방연회에서 최진하와 더불어 김영훈은 상항한인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삭도 지방회장 안영렬의 부인과 김홍균 전도사의 부인이 수술을 받았고, 비행학교 학생 박희성이 6천척을 오르다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는가 하면 김계선은 딸을, 김찬일은 아들을 각각 낳았고 박대일과 김도리스가 결혼했다.



양복임은 김영훈 목사

본 교회 평균 출석 교인수는 1919년에 47명, 1920년에 67명, 1921년에 63명이었다. 당시 한인 노동자는 일감을 좇아 이동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성장을 상상할 수 없다.

#### 양복 임은 김영훈 목사

그리고 김영훈은 삭도국어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국어교육을 힘썼다. 192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치반 학생 14명과 고등반 학생 3명이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b>뉴욕망양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b>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라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30 찬양예배: 오전 10: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 안무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부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 (6)

제7권 지적인 회심(31세): 장년기.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기원에 관한 이해.

1) 그는 철학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물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멸하는 존재요, 침해될 수 없는 존재요, 불변하는 존재로서 그렇지 못한 존재들보다 좋다고 고백한다.

2) 그 이후 악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마니교의 비논리성을 비판하면서 강력히 마니교를 거부한다. 악에 대한 마니교의 이해를 거부한 그는 악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잘못에 대한 벌로 이해한다. 그에게 끊임없이 물음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모두 선한 것인데 그렇다면 악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 던져지는 질문이다.

3)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서서히 그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 잡는다. 그는 이즈음 피르미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란 없으며 혹 맞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사실을 알고 점성술의 오류에서 벗어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보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4) 그는 존재의 계층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풀지 못한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플라톤 철학의 책들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완한다. 그는 플라톤주의 책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혼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적인 빛을 보게 된다. 그에 따라 존재의 계층은 더욱 확실해졌고 그에 따라 하나님

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선한 것으로,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한 것의 결핍이라는 답을 얻는다.

5) 그에 의하면 창조된 모든 것에는 계층이 있고,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된 세계는 함께 화합해서 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이라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은 온전치 못하다. 더불어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그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

제8권: 어거스틴의 회심(32세): 내적 갈등과 변화

1)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주교 심플리카야누스를 방문한다. 그러나 낡은 습관이 새로운 의지를 억제해 결정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2) 그는 회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습관의 흐름을 쉽게 끊지 못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갈등 상황의 원인을 의지의 왜곡, 의지의 혼돈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해가 마니교도가 믿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본성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힌다. 즉 그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속고할 때 하나의 영혼이 서로 상반되는 여러 의지 사이에서 혼동하며, 이 혼동에 의해 내면의 갈등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습관의 폭력에 얽매어 영혼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좇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심이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글을 읽자마자 그는 회심을 체험하며 충만한 확신의 빛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4) 그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체험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하고 모니카가 기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죄의 사슬을 끊은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 즉 우리를 조명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러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9권: 어거스틴의 세례(33세): 수사학 교수직 포기, 어머니의 사랑과 죽음 애도

회심을 체험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전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좇으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혀를 사용하여 거짓말을 일삼았던 교수직을

##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한 것의 결핍이라는 답 얻어 낡은 습관이 새로운 의지 억제해 결정단계까지 도달 못해 회심 후 9권 쓰는 내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고백

게신 존재자에 도달한 신비 체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정욕의 습관과 그의 약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모실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6)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초기에는 예수의 인성의 탁월성을 주장한 오류에 빠졌으나 이후에 그 이해를 수정하였다고 밝힌다. 그는 다시 한 번 플라톤주의의 길과 기독교의 길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적힌 성경,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책을 붙들었음을 고백한다. 성경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유와 겸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음을 고백한다.

나, 육욕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다.

3) 그러던 중, 그는 순결한 절제, 하나님의 선행적인 부르심을 듣고 유혹의 소리가 매우 작아졌음을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작은 소리를 그를 붙들었고, 따라서 그는 유혹의 소리와 절제의 부름 사이에서 처절히 논쟁하며 이상한 흥분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 때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져 울며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한다. 그가 도저히 내면의 고뇌를 참을 수가 없어 마당으로 나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때 근처 어느 집에서 “톨레 레게 톨레 레게(Tolle lege Tolle lege!”,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라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이것을 천상의 노래라고 믿고, 서둘러 성서를 펴서 읽어 내려간다.

그만두고 싶어 한다. 친구들과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독백을 정리하여 책을 쓴 것과, 그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다듬으셨던 것, 그리고 알리피우스를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그러면서 참 행복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 서만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기가 치통을 겪었다가 중보기도를 통해 치유 받은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는 수사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세례를 받기 위해 다시 밀라노로 온다. 그는 아테오다투스(아들)와 알리피우스와 함께 세례를 받고 과거의 그릇된 생활에 대한 불안이 전부 사라졌음을 경험한다.

(13면으로 계속)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4) 두려움 극복...지출최소화 등 실제적 대처

질문: 한창 자라는 자녀들과 함께 싱글 엄마가 된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식구나 친지가 주위에 없는 이민자로서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염려하다보면 잠도 제대로 못잘 뿐 아니라 생각도 안 되고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여 수면장애, 원인 모를 불편함, 음식의 과다 혹은 과소 섭취, 집중력 장애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중 이혼 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문제가 어려움을 더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따로 살게 됨에 따라 주거비용의 생활비가 배로 늘게 되니 큰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또한, 많은 싱글어머니들의 경우, 양육비를 전담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뿐 아니라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육아를 전담하느라 전문적인 일을 할 기회를 놓쳐 낮은 임금의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문제의 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의 하나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산을 세우고, 자녀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경제에 관해 알게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 전기 계량기의 바늘이 전기를 쓰는 만큼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거나 중학생일 경우 전기사용료 청구서 읽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부모의 경제 문제를 필요이상 알게 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살던 장소를 떠나기가 쉽지 않지만, 세금이나 보험, 수리비 등을 생각하여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 배우자와의 재산정리를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청할 경우 의외로 많은 금액이 제3자에게 가는 것을 염두에 두어 서로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입의 증대를 위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수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경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훈련이란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통한 훈련을 받는 것은 놀란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통과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의 일대일 만남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곧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질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심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심일조를 들여놓아...쌍을 갖지 않고도 밭지 않나 보아라’(말3:10). 당장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을 경우 수입의 10%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성 같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극복에 관련된 성경적 인물로는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주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말라”(수1:7).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이혼 후 밀려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1:5).  
kdrministry@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h1>서부(CA)교회안내</h1>						<b>담임목사 : 구봉주</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영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9:30, 11:30		<b>담임목사 : 진유철</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나성영락교회</b> <b>담임목사 : 박은성</b>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b>나성제일교회</b> <b>담임목사 : 차성구</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영어) 수요일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나침반교회</b> <b>담임목사 : 민경엽</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일몰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b>대표: 전영자 목사</b>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b>머무는교회</b> <b>담임목사 : 김문수</b>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미주양곡교회</b> <b>담임목사 : 지용덕</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b>미주평안교회</b> <b>담임목사 : 임승진</b>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금: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b>빛과 소금의 교회</b> <b>담임목사 : 이정현</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b>복음장로교회</b> <b>담임목사 : 이광형</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b>베델한인교회</b> <b>담임목사 : 김한호</b>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b>세계소망교회</b> <b>담임목사 : 오세훈</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열매교회</b> <b>담임목사 : 김요셉</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엘피스타지역원</b> <b>원장: 박은송 목사</b> (LA)영문합동교회 협동목사 신명사역(월-금) 오찬(사-토) 30분 사역대상: 2. 여성사역 3. 영성사역 4. 네트워킹 사역 지역: 1. 로스앤젤레스 2. 가레스지역 3. 알파지역 4. 네트워킹 지역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b>담임목사 : 한기홍</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시간: 365일 24시간 모은		<b>주님세운교회</b> <b>담임목사 : 박성규</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b>주님의영광교회</b> <b>담임목사 : 신승훈</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b>좋은마음교회</b> <b>담임목사 : 신원규</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코너스톤 교회</b> <b>담임목사 : 이종용</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토렌스조은교회</b> <b>담임목사 : 김우준</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수요일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b>핼(PIM)선교회, 교회</b> <b>담임목사 : 이훈우</b>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영대학: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b>하늘소망교회</b> <b>담임목사 : 김덕수</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일학교: “0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Tel: (213) 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		Tel: (213) 25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목회서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한살 티올로 맺어진 예준이란 이름을 가진 오빠와 예진이란 여동생을 둔 가정입니다. 그 둘은 가깝게 지나면서도 자주 싸우고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날 돌이 씩씩거리며 다툰 후 예진과 미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화상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진아, 오빠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한 말씀을 하자 “할머니,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들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한 가족일지라도

화목하게 잘 지난다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나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참으로 난처한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과 온 세계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듯 합니다. 세계를 두렵게 공포감으로 몰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19를 소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고 출입을 삼가

며 가정에 머물면서 노력을 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때 중심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 서야 할 교회 성도들마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기피하고 방목하는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쉽게 예배생활을 중단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해도 되지만 목회의 허실함에 놀라게 됩니다. 물론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르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쉬어버린다면... 이 어려운 상황의 끝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목사인 저의 생각이며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참으로 어려운 바이러스 충격을 해결할 이는 ‘부활하신 전능자 우리 주님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전염병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집에 가시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우

리 주님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열병이란 전염병에 걸린 그 여인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일으키시니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그 치료가 이제 너무나 쉽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쉬어버린다면... 이 어려운 상황의 끝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목사인 저의 생각이며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참으로 어려운 바이러스 충격을 해결할 이는 ‘부활하신 전능자 우리 주님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전염병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집에 가시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우

이 곧 끝이 나고 코로나바이러스19의 썰물의 타임이 와서 지구촌에서 빠져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쉽게 끝내게 하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를 풀고 영적인 정답을 얻어서 영적 정답을 따라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믿음의 행위마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는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가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너무 겁내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를 핸들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으로 어려운 그 일이 참으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알기쉬운 IT 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고정관념 깨기

글자는 크게·박스에 가두지 않기·페이지 수에 연연하지 말라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니 성도들에게 문서로 전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 주보도 그렇고, 가정예배 안내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것을 PDF 파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열심히 한 일들이 생각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PDF 파일은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파일인데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을 읽으려면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며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관념을 한 번만 깨뜨린다면 이 파일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은 내가 작업하고 내가 확인하는 곳이 컴퓨터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화면으로 보기에 편하니 이것을 받아보는 상대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받아보는 사람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혹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했다면 컴퓨터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심중팔구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이 파일을 읽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쇄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네모난 박스 안에 만들 것입니다. 파일을 만드는 목적은 받은 사람이 쉽게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규정된 박스 안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한 페이지 숫자에 제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상 열거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고정관념 깨기 비법은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줄에 써지는 글자 수는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줄어들고, 한 줄이던 문장이 두 줄 혹은 세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확대하지 않고 또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스에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만들어진 문서는 한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기존의 박스에 만들어진 문서는 크기가 큰 모니터로 보았을 경우 한눈에 보기 좋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페이지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입니다. 인쇄를 하는 경우는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페이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문서에 포함된 귀중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고정관념에 갇혀 삽니다. 이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아! 글자를 크게 하는 대신 종이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도 고정관념 깨기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구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참! 저는 PDF 파일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한글이나 M/S Word 같은 Word Processor로 만든 파일을 PNG 혹은 JPG 파일로 저장하여 보내면 아주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날 되시길... http://pf.kakao.com/\_FmSzx/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못하지만 지역교회 돕기 나서

뉴욕과 뉴저지 등 각 지역교회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새벽예배는 2020년에는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일시중지(New York on pause)” 명령이 4월 2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회나 일반 직장과 사업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경북지역을 위한 모금운동(2만여 달러 모금)을 마무리하고 릴레이 기도 등과 함께 뉴욕교계 돕기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보내오는 부활절 후원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들과 목회자 돕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을 통한 지원대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위해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킹과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

고 뉴욕교협이 주관하는 화상 세미나가 4월 6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됐다. 3일 이메일을 통해 알리고 사전신청을 통해 진행된 세미나 주제는 ‘교회의 PsychCheck Protection Program(PPP) 신청 및 교회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경기부양 프로그램’이다.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도 시민센터와 연결해 교회론 받기 세미나 등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솔블랑 디자인(Solblanc Designs)은 뉴욕과 뉴저지 교협에 5천개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온라인영상예배를 하고 있는 샬롯장로교회 담임 나성준 목사는 “영상예배는 더욱 준비가 필요하고 시기적인 민감함

이 있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더 받는 점이 있다”며 “이 어려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말세 예수님 재림준비의 훈련 받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매일 수록 각자 믿음의 훈련을 각자 정적으로 받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남가주지역도 못해

해마다 부활절 새벽에 가졌던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오픈지카운티 교협(회장 박상목 목사) 역시 올해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각 교회별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월례회나 다른 행사들도 모두 연기했다. 박상목 목사는 “아무것도

연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재난 이후에 복음의 계절이 나래 피도록 역사해주시길 믿는다”며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장경일 목사), 밸리지역교협(회장 하모세 목사), LA동부교협(회장 최준우 목사), 벤츨라교협(회장 김진구 목사), 인랜드 교협(회장 이희철 목사), 중부 지역교협(회장 이희성 목사)도 코로나19로 인해 부활절 연합예배 취소가 불가피함을 피력하거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LA시의 모임 취소 또는 연기 권고의 영향으로 올해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망바이러스 마스크나누기 캠페인”

GMAN선교회&선미니스트리 코소중운동본부 설치

GMAN선교회&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에서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본 선교회는 우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따라 선교회 내에 코소중운동본부(코로나19소멸 중보기도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미주내의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소망바이러스 마스크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정환 선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별히 생업을 잃어버리기까지 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구원의 메신저인 교회마저 방어만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교회가 소망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고, 에릭가 세트 LA시장과 바버라 피어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이 외출시 마스크 사용을 권고할 정도로 상황이 위중한 만큼 마스크 구

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스크 나눔 캠페인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소망바이러스 마스크 나누기 캠페인은 마스크 하나 구입할 때 하나를 더 구입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특별히 시니어 선교사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해주면 코로나로 인해 멈춰 서게 된 선교사역이 다시 재가동되게 될 것”이라며 교회가 나서주기를

바랐다. 코소중운동본부는 현재 KN95 입체마스크 1,500매를 교회방역용으로 확보한 상태로 시중에서 개당 7-1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KN95 마스크를 교회에서 주문 시 5달러(50매 225달러, 100매 400달러)에 공급하고 있다. 교회는 수량에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다. 한편 코소중운동본부는 정부의 행정명령 모임규제가 풀리면 교회 방역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주문 및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서울메디칼그룹 손수건 사용 권장

서울메디칼그룹(회장 차민영 박사)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손수건 사용을 권장했다. 차민영 회장은 SMG-서울메디칼그룹TV 유튜브 방송

(https://youtu.be/ba\_bNnWS7q8)을 통해 손수건 사용 권장했다. 차 회장은 “어린 시절 손수건 하나씩 가지고 다니며 콧물이 나올 때 사용했

지만 어느 때부터 손수건이 사라졌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손수건이 다시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조치에서 기침할 때 보통 손을 사용하지 말고 팔꿈치쪽 소매에 입과 코를 완전히 비우고 기침하라고 돼있다. 하지만 소매가 젖는 것을 꺼리게 돼 기침할 때 팔꿈치에서 코와 입을 떼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방조치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하면 된다. 손수건 사용법은 기침이 나올 때 손수건에 입과 코를 완전히 비우고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 세탁시 끓는 물에 세탁하게 되면 깨끗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새창조교회 종려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로

새창조교회(담임 김관중 목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렸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관계로 각자가 타고 온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교회임구에 주보를 준비해 들어가면서 1장씩 가져갔으며 헌금은 밖에 놓아둔 헌금함에 각자 넣고 주차장에 정차하고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차 안에서 뜨겁게 찬양을 불렀다. 또한 설교는 라디오 FM-90.5를 통해 청취할 수 있었다. 김관중 목사는 이날 “다시 왕

이 되어주소서”(요12: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각자의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감사하다. 우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다”라며 “예수님은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왕으로 등단하셨다. 이러한 모습은 승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최예식 목사 별세

뉴욕복된교회 최예식 목사(사진)가 4월 6일 새벽 3시 심장마비(심근경색증)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3세. 최예식 목사는 1981년 뉴욕에 와 미주기독교공회 사장과 벤델기도원 원장을 역임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신학대를 받고 1994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000년 뉴욕복된교회를 개척했다. 교단적으로는 KPCA 동북노회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교계적으로 뉴욕청소 센터 대표와 뉴욕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 빼앗긴 죽음에도 부활은 오는가?



**양수철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마치 일제 강점기와 같습니다. 빼앗긴 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만나서 말할 수도 없고, 억압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며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했듯이 아무리 족쇄와 같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부활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이번주일은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최고봉입니다(고전15:13-15). 죽음과 부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총 17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고는 대개 누구의 태어남을 통보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탄생사(수태고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mb'가 'womb'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국말로 해서 '무덤'이 '자궁'이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 부활의 사건을 남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여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한 말 중에 '떠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날뤼시스'인데, 묶여있던 배가 출항하기 위하여 밧줄을 풀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세계로의 여행이요. 그런데 여행가는 사람이 우는 것 보셨습니까? 롬비치항에서 유람선이 떠날 때 밧줄을 풀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손을 흔들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육신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고전15:42-44)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 '부활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기성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부활의 기쁨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전15:32b)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의 사고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는 '죽어서 문제의 해결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인생은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무책임과 쾌락주의, 그리고 정신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무엇

보다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을 함부로 삼니다. 살인, 폭력, 이기적인 생활, 오직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는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진 가치관에서 비롯되며, 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가진 내세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려면 부활신앙에 기초한 바

른 내세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안 믿으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듯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신앙을 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다 심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 이기에 신앙을 바꾸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다 심은 분명하면서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부활신앙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활신앙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둠속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이때에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부활! 코로나(Corona)와 가시관의 싸움...



**양민석 목사**  
(뉴욕교협 회장)

부활절은 코로나와 가시관의 싸움이 엮혀있다.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한다. 예수님은 당시 코로나(왕관)를 쓴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는 태어난 직후 코로나를 쓴 헤롯의 살해 위협에 애굽으로 도피를 해야만 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종교적 코로나를 쓴 대제사장의 무리들로 인해 질시와 모함을 받았고, 끝내는 빌라도와 같은 권세자들과 결탁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머리에는 권세자들의 코로나가 아니라 가시관이 씌워져 있다. 예술적인 무늬나 모양도 없이, 찬란히 빛나는 권위의 영광도 없이, 살을 뚫고 들어간 가시관은, 붉은 피빛으로 물들어 잔인한 고통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별겨 벗겨진 몸에 씌워진 가시관은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가 그린 예제 호모(Ecce Homo-이 사람을 보라)처럼, 군중들의 조소거리가 되어 더욱 초라한 예수의 모습일 뿐이다.

결국, 예수는 코로나를 쓴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가시관을 쓴 예수는 코로나를 쓴 자들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파산토록 해 버렸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코로나를 쓴 교만한 권세자들의 승리요,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코로나를 쓴 죄의 아버 사탄의 승리였다. 예수의 시신은 곧 무덤에 갇혀버렸고, 인류의 소망의 역사는 거기서 정지되었다.

하지만 단 사흘뿐이었다. 가시관을 쓴 예수 가시관이 곧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열어 제쳐 버렸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흉내 낼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죽음의 정복사건을 단 3일 만에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 놓았다. 그렇게 거창하고 당당하게 코로나를 쓴 자들이, 가시관을 쓴 예수에 의해, 완전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죽음의 정복자로 가시관 쓴 신 분 앞에 더 이상 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일까? 부활절은 코로나를 쓴 자들과 가시관을 쓴 신 분의 싸움에서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결론은 가시관의 승리다. 가시관을 쓴 신 분을 따르던 사람들의 승리요, 가시관에서 흘러나와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 핏방울 밑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승리다!! 회개의 눈물로 시작하여, 사명의 눈물로 예수와 함께 피 흘려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한 완전한 승리다(롬8:35-47)!

지금 왕관을 쓴 코로나바이러스19 판을 치며, 두려움의 재를 뿌리고, 사망의 천을 덮으려한 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시관

쓰신 분, 그 품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야만 한다! 한없는 겸손과 사랑과, 거룩의 품으로 돌진하여 무릎을 꿇고 당신의 피로 나를 적셔달라는 목마름으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힘있게 흘러가도록 기도하자!

바로, 예수의 가시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는 코로나를 이긴 승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한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이 처절한 생명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믿음을 격려하자, 서로 더 겸손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크리스천의 담

함 을 보 여 주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위기의 땅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자! 아멘!!

3일만의 부활! 주님의 부활 의미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며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은 들에 새싹이 나고, 죽은 듯 보이는 나무에도 꽃송이가 피듯,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일평생 계속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말씀행전, 전도행전(5:42)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행전"입니다. 20번 이상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언급한 사도행전은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팬데믹에 두려워 말고 부활을 통하여 팬데믹을 이겨내시는 시대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죽음을 이기는 예수 부활의 능력



**진유철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총회장)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사랑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

배를 드리던 전통도 올해는 이 어갈 수 없게 됐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지도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주일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서뜨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해내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2천년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마20:19)고 일러 주신대로 정확히 그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여전히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

건'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따르면 부활을 믿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전파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바로 그다음 구절인 19절에서 두려워 숨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역사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요11:25-26). 코로나19의 공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은 후에도 주변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한 태도로 복음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십니다. 예수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롬4:25)이십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살롬!

## 부활의 승리



**이준성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변화가 예상되는 팬데믹 이후의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는 직장의 변화를 몰고 오고 인간성 상실의 징조가 보이며 자신 위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둘째, 마스크 착용, 씻기 및 소독관리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기 틀에 갇힌 인간으로 관계망이 변화할 것이며 접촉에서 불가접촉으로 사회질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셋째, 통신키재와 SNS 발달은 급속한 개인주의와 접촉이

뚝한 배달업종이 대체를 이룰 것이며 이 현상이 지속되면 선악의 기준이 뒤틀릴 것이다.

넷째, 공권력 강화는 개인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각종 모임의 제한 등으로 인종차별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데믹과 부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팬데믹은 부패한 인류 아담의 후손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부활은 팬데믹을 치료할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팬데믹이 한 사람 아담이 가져온 죽음(롬5:12)이라면 부활은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롬5:18)입니다.

##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장동신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뉴저지인 교교회와 온 성도님들께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전염(병)으로 뉴저지는 물론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모

이는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부활절 새벽예배를 예년과 같이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또는 미디어를 통한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소식은 온 세계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이며 장차 우리가 누릴 소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때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옅고 백처럼 이 시간이 지나고 정금처럼 단련된(욥23:10) 우리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부활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 TGC, 제이 김 목사 통해 확인해보는 온라인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성 소개

최근 몇 주간 나는 여러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이 교회론적 난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의 결정이 지혜로운 결과 지혜롭지 못한 결과? 우리의 행동은 올바른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는 결과?

혼돈의 상황 속이지만 조만간에 책 한 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나는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아날로그 공동체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자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교제하기 위해 디지털로 “연결”되는 편리함 대신 아날로그로 모이는 수고를 하는 공동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비디오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날것과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

이에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해보면서, 불안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Taking Church Online in a Coronavirus Age).

### 예배: 미래 소망을 실제 몸으로 구체화하고 미리 행하는 방법

편리가 아닌, 조율

빠르게 급증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성도들에게 이를 독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자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정부가 대규모 집회 금지를 지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내가 사는 곳과 섬기는 곳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 대학교는 이번 학기 남은 기간에 강의실 참석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립학교도 같은 결정을 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교단들은 이러한 방향을 강하게 권해 직접 참석하는 모든 규모의 집회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래서 회중을 온라인 공간으로 인도해야 한다면, 회중에게 디지털 예배의 현실이 편리하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명백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중에 중요한 갈림길

에 서게 할 것이다. 편안한 집에 앉아서 TV와 컴퓨터로 설교를 시청하는 것은 분명 편리한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은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 형성된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예배하지 않았던 때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예배당의 공간에 함께 모이

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특정 상황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직접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

여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면, 나는 온라

시간과 매체를 선택하기

잡시지만 새롭고 낯선 디지털 현실 세계에 당면한 우리에게 시간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동안 공동체가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구성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진실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다.

대부분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기간에는 평상시 주일예배 때보다 좀 더 대화적인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 후에 대화로 이어지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 기

집회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배라고 언제나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기도에도 유사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온라인 교회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다. 디지털 거리의 깊은 골을 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몸이 실제로 함께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강도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는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잘 이뤄지면, 교회생활에서 곁들고 있는 성도들을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미 대규모/소규모, 모임/홀어짐의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모임이 존재한다. 대규모 주일예배 모임이 있는가 하면, 도시 전체에서 인근 지역과 마을별로 흩어져 모이는 소규모 그룹도 있다. 예기치 못한 이 기간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주중에 모이도록 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 모임을 독려할 수 있다. 대규모로

쫓나니”(요일4:18)라는 성구를 많이 암송한다. “온전한”의 헬라어는 ‘teleia’이며, 여기서 “궁극적 종말 혹은 목적”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telos’가 나왔다. 이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흠으로 지어졌고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다.

이것이 교회가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섬기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미래의 소망을 실제로 몸으로 구체화하고 미리 행하는 방법이다. 현재 상황이 앞으로 몇 주간 그리고 몇 달간 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한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쓸 수 있다(살전2:17).

필자 제이 김(Jay Kim)은 캘리포니아 산타 쿠르주에 위치한 Vintage Faith Church의 교육과 리더십 담당 교역자이며, The ReGeneration Project의 지도자 팀에서도 섬기고 있다.

### 디지털 예배가 일시적 방편임을 명백케 하는 것 매우 중요 잘 활용하면 교회생활 꺾는 성도 연결방식으로 사용가능

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실제로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임시로 행하는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

간에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눈과 귀만 빌려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질문으로 소통함으로써 디지털로 분리된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실시간”

모일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규모로 그리고 흩어져서 모일 수 있다.

서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천은 보통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뇌졸중

전조증상 없어 예측 어려워

일반인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뇌졸중은 대개 전조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갑자기 뇌동맥이 터지는

경우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남성 서 모씨는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잠에서 깬다. 심한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 두 알을 급히 삼켰지만 두통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씨는 곧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 씨는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우측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평소 고혈압을 앓던 서 씨는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

우고 술은 이틀에 맥주 2-3병을 마셨다. 응급실 당직의사의 검진 시 혈압은 160/70mmHg, 맥박은 분당 60회였다. 빛 반사시 동공이 수축하지 않았고 우측 팔다리의 운동신경이 현저하게 감소해 있었다. 응급 뇌 단층촬영에서 뇌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소견이 보였고, 작은 뇌동맥류(brain aneurysm)가 보였다. 골장 서 씨는 응급 뇌수술을 받았다. 서 씨의 뇌출혈원인은 뇌동맥류 중 하나가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다. -

뇌동맥류는 동맥이 분지로

갈라지는 동맥벽이 약한 경우 오랜 기간 동맥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리모양을 형성한다.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약 5%, 미국에서는 약 1,000만-1,500만 명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다. 이중 20-30%는 하나 이상의 뇌동맥류를 앓는데 뇌동맥류는 뇌지주막하출혈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매년 뇌동맥류가 터지는 경우는 약 3만 명 정도다 뇌동맥류는 6:4 비율로 여성에서 조금 더 흔하다. 원인은 유전적인 탓도 있고 여성의 뇌혈관 모양이 혈압을 더 많이

받도록 생겨서 쉽게 동맥류가 생긴다. 고혈압과 흡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부족 등은 뇌동맥류 위험인자다.

뇌동맥류가 있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동맥류 검진을 받아야 한다.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혈압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담배를 꼭 끊어야 한다. 또 지나친 알코올을 섭취나 마약류 같은 혈관을 자극하는 약물은 금하고 심하게 배에 힘을 주어서 뇌압을 상승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Ridgewood 809 Broad Ave., Ridgewoo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부활절연합예배 대폭 축소해 드린다

교단장회의 향후계획 결정...교단별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가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오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대폭 축소해 드리기로 했다.

23개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하는 모임인 교단장회의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방식을 논의한 끝에 취소·연기보다는 축소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외형이 중시된 행사보다는 코로나19로 희망을 잃은 국민에게 예수 희망을 전하는 부활절 메시지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에 서다.

교단장회의는 당초 대규모 부활절 연합예배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과 서울광장에서 '2020 이스터 퍼레이드'도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교단장회의는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퍼레이드는 5월 31일로 연기했다"면서 "12일

오후 3시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도 교단별 2-3명의 대표와 순서자, 찬양단 등 200여명만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는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이, 축도는 장종현 예장백석 총회장이 한다. 예배는 CBS로 생중계된다. 신수인 예장고신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과오를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고 전했다. 이날 교단장회의에 참석한 주요교단 총회장장과 총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뜻을 듣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예장합동은 부활절을 앞두고 1만2000여 소속 교회에 '부활절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예장합동은 임원회에서 '부활주일'은 4월 12일로 지키되, 코로나19로 인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기념 및 특별감사예배는 지역교회 형편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했다. 5일 종려주일 이후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특별연합영성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김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부활주일을 5월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추가 감염을 최소화한 추이를 고려해, 예정대로 부활주일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연합영성새벽기도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5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는 30분 분량의 기도회 영상을 마련했다. 영상은

총회 홈페이지(gapck.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찬양 성경봉독 설교 합심기도 축도로 이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기도회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부활절에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특성상 우려할 만한 어떤 돌발적인 감염이 발생하지는 누구도 모르며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교회는 물론 사회 전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목협은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둘 다 '포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감수하며 모이는 예배를 지속해 온 교회들과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며 온라인예배로 잠정 전환했던 교회들 모두 존중하자는 의미다. 한목협은 모이는 예배를 재개해도 온라인예배를 병행해 달라고 권했다.

## 부활절 기념예배 2주 연기 한다

지구촌교회 등 10여개 교회, 교회들 동참 요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 까지 2주 더 연장할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10여개 교회가 부활절 기념예배를 2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부활절을 앞두고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향후 부활절 예배를 고민하는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분당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는 오는 12일 부활절 기념예배를 2주 뒤인 26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도 20·25일로 연기했다.

연기된 날짜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경우 특별저녁부흥회로 대체해 영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성은牧사는 교역자들과 성

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교회 내 의견을 청취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 내 10여개 교회 담임목회자들과도 상의했다.

최 목사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 구제와 방역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 크게 부각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등교 개학을 연기한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시각이 전체 교회에 매우 부정적인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한, 두 주 연기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예수향남교회(정갑신 목사), 더사랑교회(이인호 목사) 등이 26일로 부활절을 연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들교회는 이미 지난 5일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해 동역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목사·장로 정년 연장? 글썸...'

예장합동 정년연구위원회 설문조사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대(총회대표)들은 목사·장로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지난 달 제104회기 총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3%가 '현행(만70세) 유지', 12%가 '하향 조정'이라고 응답해 과반 이상(55%)이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총대는 45%였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안'은 수년 간 예장합동 총회에 올라

온 단골 현안이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선 역대 최다인 16개 노회에서 현의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가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장백석 등 목사·장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킨 타 교단 움직임을 반영해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교단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조사에서는 교회가 속한 지역, 응답자의 직분, 성도 수,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 총대의 65%가 '정년 연장 반대'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교단 내 농어촌 지

역 노회들은 '목회자 수급 부족' '장로 은퇴로 인한 폐당회 증가' 등을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년 연장안' 논의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50.5%) 수도권(52.1%) 중소도시(52%)에 비해 월등하게 반대 응답이 높게 나와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직분별로는 목사(53%)의 '정년 연장 찬성' 응답이 장로(33%)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년 연장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장로 총대(21.3%)가 목사 총대(5.2%)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비율이 6대 4로 목사가 늘다는 것을 감안하면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가 동수를 이루는 총회 현장에서는 장로 총대의 '정년 연장 반대' 비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총대 15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8일 까지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802명이 동참해 51.1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60%(479명)가 목사 40%(323명)가 장로로 나타났다.

정년연구위는 오는 21일 새 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연구논문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자료는 서창원 전 총신대 교수, 이희성 양현표 총신대 교수, 김근수 칼빈대 총장이 나선다.

## 6월 서울광장 쿼어행사 취소

쿼어행사조직위 "코로나 방역위해 8월 이후 연기"

동성에 단체들이 6월 중순 개최하려던 서울광장 쿼어행사를 취소했다.

강명진 서울퀴어문화행사 조직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2020 서울퀴어문화행사(서울 쿼어퍼레이드, 한국퀴어영화

제)의 예정 일정을 8월 말~9월 말로 변경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계속 참여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보건당국의 지침 및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12-13일 서울광장에서 동성에 단체들의 쿼어 행사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확산방지를 위해 서

울퀴어문화행사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철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현재 6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서울시도 논란이 지속되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개최는 금지될 수 있다.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는 취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서로 도우며 위로와 감사를...

하이패밀리, 가족갈등 예방수칙 발표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했다.

김향숙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잠재된 갈등 요인과 결합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가족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예방 수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들에게 삼시 세끼 밥만 준비

가 부담스러운 요소다. 김 공동대표는 "엄마표 손맛은 하루 두끼면 충분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이 줄어든 만큼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는 게 맞다"며 "어쩌다 한끼는 지친 엄마를 위한 식탁을 차려보자. 엄마를 위로하고픈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녀들이 종이 게임을 하거나 TV, 휴대전화만 습관적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매일 '라이프 플래너'가 돼야 한다. 김 원장은 "자녀가 매일 자기주도적 삶을 연습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계

획하도록 하자. '방콕'이 재미와 의미, 감동이 있는 가족축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패밀리는 자녀를 가사 노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라고 조언했다. 외출은 힘들지만, 독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족끼리 독서 시간을 늘림으로

서 책 속에 담긴 삶의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이패밀리는 스트레칭 걷기 뛰기 등 몸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가족끼리 편을 가르치지 않기, 상대방을 위로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국교회가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기공협, 공명선거 운동·투표 참여 독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30일 한국교회에 공명선거 운동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양 기관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실천 및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기독교인은 믿을

기도/칼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체육, 문화 등 모두 분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강대국도 선진국도 무참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우주를 여행 하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인류는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확진자가 백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마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퇴치는 되겠지만, 폐해가 너무 큽니다.

교회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에, 교회들이 클로즈 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배환경의 변화로 당혹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성도들이 더욱 결속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성 금요일에 꼭 참여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특히 성금요일에는 예배 시에 가정에서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라인 새벽예배, 부활주일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만이 고난 저편에 있는 승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디모데후서 2:8).

bible66@gmail.com

## 경기도, 20개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은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지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해 예방수칙을 위반한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원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원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조치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 표, 기도의 표, 양심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면서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인식해 한국교회가 나서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 근절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또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자가 지도자로 선출돼 우리가 사는 지

역과 국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조성과 투표에 한국 기독교 유권자들이 동참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름다운 선거 추진 협업사업'에 종교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1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3. 슬픔

슬픔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나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항상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와 대화하는 중에 나는 그녀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음을 알게 됐다.

나는 그녀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됨으로써 받게 된 슬픔의 감정을 치유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픔이 커서 비탄에 젖어 있으면 당신은 비탄의 집에 있는 것이고 그 집에는 죄책감, 자기연민, 분노, 후회, 용서, 책망, 내려놓음 등 많은 감정들이 들어 있는 각기 다른 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다 방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치유

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함은 죄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은 학대 받는 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와 분노를 차분히 다스릴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라고 말씀하셨다.

### 4. 절망

교도소에서 심하게 상처를 입어 병실에 입원한 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히고, 끔찍한 일이 오늘, 내일 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은 절망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나요?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기독교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으세요?” “아닙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성경책과 나의 저서 “뒤틀린 논리, 자살의 그림자”를 읽어보라 권하며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말했다. “저는 절망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절망의 악령이 주는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뒤틀린 논리’를 읽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해졌어요. 사실 저는 18살에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죽음에 대한 동경과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는

## 자신과 타인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 하나님 음성듣기 연습, 각자에게 은사대로 주신 사명 알아야

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영과 관여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하고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나는 그 방법

마음에 내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음성, 당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당신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파괴적인 음성에도 저항해야만 해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만 해요. 그래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19).

yanghui.mcdonald@gmail.com



##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장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 카일 아이들면

장려상 한연선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한 번에 한 걸음씩. 일단 하찮아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딛으라는 카일 아이들면의 조언을 마음 한켠에 심고 컴퓨터의 워드문서를 열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은 얼마 못가 산만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머리에 띠를 둘러매고 글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한숨을 쉬니 자포자기의 마음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다. 시간은 어영부영 흐르고 슬그머니 컴퓨터를 닫는다.

며칠이 지났다. 글은 잘 써지고 있느냐는 누군가의 안부인사에 다시 책을 펴고 글을 쓰려고 한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한다. 한참을 쓰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 무엇이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책의 요점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힘든 것을 포기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의 길이다.

과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그 죄된 본성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들의 경주를 마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고쳐놓고, 그 모든 것보다 나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승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살아내라는 부르심이었다. 화려한 외

투 속에 감추어진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사람들에게 ‘포기’가 얼마나 달콤한 선택인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의 경주를 강요하면서 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무겁다. 나도 외치고 싶다. 힘들어 지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코치가 필요하다고. 책의 첫 에피소드로 나오는 농구팀 아이들처럼 내가 결혼전에 나와 경기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되면 삶이 좀 더 험잡지 싶다. 승리가 코 앞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을 좀 더 내라고 나를 붙들고 외치는 리더가 있으면 좀 낫겠지 싶다. 그렇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승리의 트로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태반이고, 찢어진 힘줄이 짜내리며 나를 격려하는 코치도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버겁고 힘들 때 마다 ‘이만 하면 할 만큼 했어’라고 중얼 거린다. 그 말은 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그 열정을 효과적으로 꺼버린다.

그런 식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다는 핑계로 수없이 많은 포기를 해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변명은 단연코 잘 통했다. 게다가 요즘 청년들은 적당히 하고 포기하는 것, 해도 안될 것 같은 것들은 아예 안하는 것, 내 보기에 할 만큼만 하는 것,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철

학이 되어버린 세대이다. ‘삼포(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세대’나 ‘N포 세대’라는 말이 신조어로서 유행하다 못해 사전에까지 추가될 만큼 포기가 젊은이들의 삶에 하나의 특징이 되었다. 그래서 청년이 된 후배들은 마치 ‘절전모드’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해도 결혼을 포기한다. 혹 결혼했어도 다음 세대를 포기한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용납하

...내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힘이다. 내게 주어진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다...

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나는 운 좋게도 포기가 강요되는, 혹은 자포자기 시키는 험한 세대를 비껴간 운 좋은 기성세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는 결혼으로 남편과 함께 도미하면서 외국계 기업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이어왔던 7년간의 교육컨설팅 일을 포기했다. 그때는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했다.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는데 정당해 보였다.

나의 상사는 휴직이 1년 끝났을 때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남편이 아직 미국에서 학위가 끝나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지만 석연찮다. 그

당시엔 전담해서 돌보아야 할 자녀도 없었고, 정작 학위 중인 남편은 공부로 너무 바빠서 열굴 볼 시간도 많지 않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내가 다니던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다). 나는 그런 제안에 ‘영어가 부족해서 패드백을 스스로에게 쥐어준 후 그만 두었다. 열심히 받았으로 일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경적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주말에 밤새워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저는 교회에 다녀와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나 외야 할 때, 그래서 평가에서 불리해도 기꺼이 감수하며 계속 성실해야 할 때, 남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승진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쑥맥처럼 슬자리를 거부할 때,

그리고 나서 사회도 하나님도 나를 보상해주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그 기다란 마라톤이 지겨웠다. 다시 전쟁을 하느니 지루함을 견디는 게 나를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요나처럼 고래 뱃속으로 달려 들어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는 그 이후에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는데, 한국어를 쓰지 않는 미국이 원망스럽고, 나를 데리고 미국에 온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슬프게도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탓을 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회상이 계속 이어진다. 모니카는 어린 시절 술을 조금씩 맛보다가 나중에는 술을 좋아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는데, 허니의 질타를 통해 그 습관을 단절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니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지혜 있게 행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더 재미없는 것은, 나는 지루하고 잔잔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바쁘고 전쟁은 계속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후방으로 빠진 것 같은데도 이 어지는 이 전쟁의 정체는 무엇인가?

카일 아이들면의 책 속에서 답을 찾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다. 생똥맞은 것 같지만, 야곱의 예외적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주말에 밤새워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저는 교회에 다녀와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나 외야 할 때, 그래서 평가에서 불리해도 기꺼이 감수하며 계속 성실해야 할 때, 남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승진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쑥맥처럼 슬자리를 거부할 때,

주를 완주하길 독려한다. 그 이유는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나는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격정과 근심, 삶의 짐을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인내를 발휘해서 끝까지 완주하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처럼 이 모든 싸움의 궁극적 전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힘

동하여 화목한 부부로 남았음을 말한다. 그와 그 일행이 모니카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던 중 오스티아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접촉한 것은 비록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으로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이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늙게 되어 임종에 이르렀을 때, 자식들에게 자신을 주의 제단에서 기억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는 길요는 태연했으나 그 마음에는 이중적인 슬픔으로 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대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더 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분의 은사를 어떻게 써서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는 그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해 주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19).

yanghui.mcdonald@gmail.com

### 부활절 설교

(3면에서 계속)

그러나 경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 서 현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교회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서 부활의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는 COVID 19으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 중에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음은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

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히11:35). 믿음의 여인들은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성도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날이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리라”(요14:19). 과거 어느 때보다

로위하며 홀로 울었던 일을 회상한다. 이어서, 하나님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통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9권을 마친다. 그는 9권을 쓰는 내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고백한다. 즉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과 세례를 받게 된 것,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신비체험, 어머니의 죽이까지의 과정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른 것임을 고백한다.

younsuklee@hot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 가정의 본질**

일반적으로 가정의 본질을 말한다면 가정은 가족들이 쉽게 얻는 안식처로서, 인간의 인격형성을 이 루는 최초의 교육의 장(場, Field)으로,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식생활을 해결하고 환자를 돌보는 장소 등의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가정의 실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이상이 성취되지 못

하는 데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상적 가정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본질적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T.B. 매스틴,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에디스 셰이퍼는 “가정은 인간 성격으로 만들어진 살아 있는 수레바퀴요, 기독교 가정은 성경에 의해 돌아가는 수레바퀴”(Edith Shaeffer, “What is a Family?”)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인격 형성과 바른 가치체계를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우심이 필

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클라이맥스,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창조, 즉 남자와 여자에 의한 신적 제도인 결

**신자간 이성간 결혼 필수, 가정 통해 하나님나라 확장  
성령의 도우시는 가족구성원 역할과 책임, 협력 중요**

혼을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2. 기독교 가정은 신자간의 결혼을 전제로 하며, 남자와 여자에 의한 이성간의 결혼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생육할 수 없는 동성애(게이, 레즈비언),

양성에, 트랜스젠더 간의 결혼은 불허합니다.

3. 기독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기독교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4. 기독교 가정은 세계선교의 출발지로서, 지역, 국가, 및 해외선교에 앞서 영적 결혼가정이 없도록 전가족 복음화에 힘써야 합니다(행1:8).

5. 기독교 가정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자녀의 순종과 공경,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하는 부

다(Elton Trueblood, “가정생활의 재건”).

7. 기독교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헌신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족관계에 충실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동의 신앙과 수행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8.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며, 그리스도를 낳는 가정입니다(베문란, “크리스찬 가정 사목”).

9.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10. 기독교 가정은 각 가정마다 교육과 전도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1. 기독교 가정은 교회의 기초로, 일반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며 가정의 최종 목표는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행복에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협력이 아주 중요하며, 성경적 원리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모와의 관계로 구성된 가정(엡 5:22-6:4)입니다.

6. 기독교 가정은 일부일처, 즉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되며, 긴밀한 친교로 결합되고, 자기의 편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구성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임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상호관계, 안정감과 위로감 및 따뜻한 온정의 교제가 있는 삶의 안식처로 먹고 자는 장소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정수자, 이은숙, “기독교 가정교육학”).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일마다 설교하라!**

TGC, J.L. 크루즈 목사의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기 위한 도전’ 소개

이번 주일에 나는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일을 해 보려고 한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보는 것이다. 교인들이 집이나 또는 소그룹을 만들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예배 형태를 벗어난 온라인예배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아마도 예배의 대안을 찾는, 몇 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백 명의 목사 또는 예배인도자가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온라인 예배를 가능케 하는 현대 기술에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지침에 조금도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이고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Take Heart, Pastor, Your Church Won't Be Empty Sunday). [필자 조나단 랜드리 크루즈 Jonathan Landy Cruse는 미시간 주에 있는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OPC) 담임목사로 저서 ‘The Christian's True Identity’가 있다.]

그럼 나는 기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즉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 기쁨에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이었기에 말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시122:1). 그러나 이번 주, 그리고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를 놓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걸 생각할 때 내 안의 기쁨도 사그라짐을 느낀다.

목사로서 나의 한주간은 항상 주일을 향하고 있다.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관련한 여러 회의를 할 뿐 아니라 성도

들과 교제하는 등의 모든 과정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때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일련의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예배 시간으로 그 정점을 이룬다.

물론 나는 이번 주에도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일은 상황이 다를 것이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할 것이다.

예배 시간 내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함께 드려야 하는 기도를 나 혼자 하게 될 것이고, “찬송가 몇 장을 피시지요”라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반응에서 상상할 수 있는 나의 설교는, 아무

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어색하기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그럼에도 이런 온라인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목사에게 정말로 영적인 도전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 목사라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숫자에 무척 민감할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19’의 위기가 목사에게 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교인 숫자 세는데 더 바쁜 우리의 습관에 제동을 걸어준다는 사실이다.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묵도하면서, 비로소 신학자들이 말하는 ‘보

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모인 또는 앞으로 모이게 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WCF 25.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2-23절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예배를 드

려 보자 되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다(히12:24).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여, 지금 당신 앞에서 당신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해 하기 위해 주일 예배시간에 완전히 텅 빈 예배당을 내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닐까?

단 한 분의 청중 앞으로 다가올 주일을 맞으며 또 하나 우리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설교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그 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리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매주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나의 설교 능력과 비전을 주는 리더십, 또는 나의 매력적인 그 무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새 언약의 중

요한 계신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비록 교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앞에 앉아계신다. 그동안 수많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아왔던가?

지난 주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동네에서 예배를 취소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취소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날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인이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교인으로 꼭 찬 예배당을 보면서 예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강한 유혹을 느꼈다.

참석한 숫자로 보면 이번 주는 지난주와 정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예배당이 꼭 차게 보이게끔 느끼기 위해서 내게 텅 빈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됐든, 나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내게 필요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것을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목회자여, 온 마음을 쏟아서 이번 주일에 설교하라. 낙담하지 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카메라를 향해 쏟아 부어라. 격리된 당신 자신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라. 하나님은 지금의 이 기이한 상황조차도 당신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예수, 다시 사셨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 외 임원일동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 부활의 능력으로 펜데믹을 이겨냅니다!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담장로교회(PCAs)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4)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4월 6일

-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 영어로 보는 성경 (6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Hebrews 12:1-3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2) Let us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NIV 2011)

### WORD & IDIOM

\* be surrounded by ~: ~ 에 (~에 의하여, ~로) 둘러싸이다 \* a great cloud of ~: 구름떼와 같은 ~ \* throw off ~: ~를 떨쳐버리다 \* hinders: 막다, 방해하다 \* entangles: 얽히게 하다 \* perseverance: 인내 \* mark out: 계획을 세우다 \* fix one's on ~: ~를 주목하다, 주시하다 \* author: 창시자 \* perfecter: 완성자 \* endure: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 scorn: 멸시하다, 경멸하다, 팔보다 \* shame: 수치심, 창피, 부끄러움

### GRAMMAR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그러므로 ~ 이므로(~이니) 둘러 싸였다 구름떼와 같은 증인들의 의하여 우리가 떨쳐 버리자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그) 죄 쉽게 얽매이는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그리고 달리자 인내와 함께(인내 하면서) 계획된 경주 우리를 위하여

⇒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떼와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방해하는 모든 것과 쉽게 얽매이는 (그) 죄를 떨쳐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계획된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 ①과 ②의 (that)은 둘 다 주격 대명사이다. 따라서 (everything that hinders)는 방해를 하는 주체가 (everything)이며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는 얽매이는 주체가 (the sin)이다.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hinders)와 (entangles)가 동사이지만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한다는 것이다.

### 2)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③

우리가 예수를 주목 하자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개척자이며 완성자 ⇒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라,

④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그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참았다, 그것의 수치심을 멸시하며,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 쪽에 앉았다. ⇒ 그분은 십자가의 수치심을 멸시하며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 앉으셨다.

\* (set before him)에서 (set)는 과거분사로 형용사적 기능을 갖고 앞의 (the joy)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 (scorning its shame)는 ④의 (who)로 연결한 문장과 관련한 분사구문으로 부사적 기능을 갖는다.

\* ③과 ④에 있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는 (Jesus)가 누구 인지를 짧게 수식하고 있는 삽입구이며, ④의 (who)는 ③의 (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who)이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Jesus)가 누구인지를 좀 더 길게 설명해주고 있다.

### STUDY & THOUGH

■ 인내는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결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으셨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다. 바이러스 질병(COVID-19)의 창궐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총체적인 위기이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내를 배울 때다.

■ Troubles we are facing are God's discipline.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왕하2:1-4)

엘리아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 하나님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명자를 세우는 방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거듭 여행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2, 4, 6절에 계속 엘리사에게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은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꾼이 되어하겠습니다.

## 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2:5-8)

엘리아는 계속해서 포기하도록 부탁합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왕상19장에서 엘리야를 수종들기를 시작하면서 아합왕과 아람왕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아합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 22장1절에 보면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에 올라서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후 엘리야가 승

천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을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키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니까 자신 없으면 포기하도록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 수 감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다(왕하2:9)

엘리아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원하는 것이 있거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직 한 가지 "당신의 영감이 감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다" 여기에서 "감절"은 "장자의 뭇"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제들보다 2배의 뭇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보다 능력 있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뭇을 풀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있었던 감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 목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왕하2:10)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감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이라서 난처해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며 대답합니다. "나를 하늘로 승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말세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감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실 것입니다.

## 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왕하2:11)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일꾼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걷기를 계속하면서 하늘로부터 짐조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

리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도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눅24장과 행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 일꾼의 자세는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겠습니다!

## 토 여호와와 어디 계시나이까(왕하2:12-18)

본문에서 하나님 일꾼의 자세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끝까지 절제된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던 엘리야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스승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도들도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어느 산애나 골짜기에 던져버리셨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선지생도들이 하도 강청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금방 그의 안정되고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준비된 일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 받게 하옵소서!

### 생명은 살고

(COVID19를 지나며)

예수, 부활하셨다는데도 불안과 공포에 덮여있다.

예수, 생명이라시는데도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다.

변함없는 하늘은 세상애기 관심없다 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애기 살아갈 애기 가슴 두근 소근대며 두렵다한다.

하늘 사는 생명 이야기 하늘 가는 부활 이야기 이미 주신 하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사는 이야기는 야릇한 죽음의 공포 뿐.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내일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성경은 외치나니 예수는 부활이요 부활은 생명이다.



시/사진

이 동 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담임

# 예수 부활 하셨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말씀

"숨막혀오는 상황을 피부로 느끼며 실제적 압박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읍시다. 정부의 말도, 전문가의 말도, 가까운 친구의 말도 힘이 되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언제 세상에 소망이 있었던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과 1:1찬스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역전결승골을 넣는 인생승리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진 목사 주일설교 중에서



Vasquez Rocks Easter Sunrise Service (2019 부활절 새벽예배 현장)

• 방송설교 : 매주일 오전 8시 1650Khz  
• 팟캐스트 : 성화장로교회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화장로교회  
www.sung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부활 축하 광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mailto: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http://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http://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808)542-2922  
[www.ikccah.org](http://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http://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S.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http://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mailto: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길교회

담임목사 :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07660

Tel. 201-625-1458  
[nengchun@hotmail.com](mailto:nengchun@hotmail.com)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